

##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임상적 효과



한수부 교수 (Prof. Han SB)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치석제거술은 치관면과 치근면에 붙어있는 치태, 치석, 색소를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치석제거술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단순히 입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치주치료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술식이다. 치근활택술은 치석, 내독소, 세균이 부착된 거친 백악질과 상아질을 제거함으로써 유리알처럼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SRP)의 일차적인 목표는 치은염증을 유발하는 치태, 치석, 세균의 내독소를 제거하여 치은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SRP는 치은염과 치주낭 깊이가 6mm 이하인 경우의 치주염, 급진성 치주염, 치주농양, 그리고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주염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급·만성의 치은염의 경우 가벼운 SRP로 완벽히 치료할 수 있고, 치주염의 경우 치주낭의 깊이가 적을수록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흔히 치주농양을 절개에 의한 방법으로 치료하는데 이 경우 치은퇴축으로 인한 심미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SRP만으로도 치주농양은 치료된다. 당뇨병이나 간질환, 혈액질환 등의 질환을 갖는 환자의 치주염 치료에 있어서 수술보다는 SRP가 권유되고, 이 경우 SRP의 효과는 놀라울 정도이다.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치료 후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총의 변화이다. 치주낭 내 치주원인균의 완벽한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전체 치주원인균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 세균집단을 정상 세균총으로 대체함으로써 치은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SRP 후에 치주낭 깊이의 감소, 치은의 염증의 감소, 탐침시 치은출혈의 감소가 일어난다. SRP로 인한 치주낭 깊이의 감소는 임상적인 부착수준의 증가와 치은퇴축에 의한 것으로 초기치료 전의 치주낭 깊이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

SRP 후 치조골의 변화에 관한 보고는 많지 않다. 그러나 SRP 후 방사선상에서 치조골의 변화를 흔히 관찰할 수 있으며, 최근의 한 연구는 비외과적 치주치료 후 6개월부터 치조골 밀도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 교수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제34회 협회대상 학술상  
스위스 베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석, 박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치주과수련